

“몰카·미행 ... 우리사회 축소판 같죠”

이정진, 영화 ‘트릭’서 시청률 전전긍긍하는 PD역 18년차 배우 ... 두차례 전시회 등 사진작가 활동도



“제가 연기한 배역이 관객들에게 입체감이 있는 인물로 보였으면 해요.” 영화 ‘트릭’에서 시청률을 높이고 조작 방송도 불사하는 PD 역을 연기한 배우 이정진(사진)은 11일 종로구 한 카페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영화에서 보면 석진은 나쁜 역인데 그냥 나쁘게만 보였으면 실패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릭’은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몰래 촬영, 폭행 사주, 미행 등을 서슴지 않는 방송계의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다. 이정진은 ‘쓰레기 만두 파동’ 오보로 보도국에서 쫓겨났다 10년 만에 교양국 PD로 복귀한 석진을 연기했다.

그는 “석진이 자신감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며 연기했다”며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남들을 배려했을 텐데 석진은 자기가 맞다고만 생각해 연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릭’이라는 영화를 우리 사회의 축소판으로 봤다.

“영화가 대한민국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다들 남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나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도 남들이 ‘좋아요’를 누를 만한 것을 올리잖아요. 시청률을 위해서 남이 좋아하는 것만을 하다 보니 석진이 괴물처럼 된 것 같습니다.”

이정진은 실제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로서 시청률에 무신경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그는 “시청률에 전혀 부담이



함께 웃고, 울었던 대한민국 모든 것은 조작되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출연진으로서 책임감이 있지만 항상 잘 될 수는 없다”며 다음 작품을 할 수 있을 만큼, 즉 손익분기점을 넘길 만한 시청률 수준은 되기를 내심 바란다고 했다.

이정진은 배우로서뿐 아니라 사진작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한다. 이미 두 차례 사진전을 열기도 했다. 8월에는 부산국제사진페어에 참여하고 조만간 외국에서도 사진전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진가와 사진작가를 구분해서 말했다. 사진가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찍는 사람, 사진작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찍는 사람을 뜻한다고 했다.

사진작가로서 그는 봉사활동을 자주 가는 내팔, 케냐 등 저개발 국가의 사람과 풍경을 주로 찍고 있다고 전했다.

“어릴 적을 떠올리면 처마 밑에 큰 가족 사진이 있는데 아프리카의 나라에는 카메라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사진을 찍어 집에 걸어주자’, ‘부모 사진은 아이들에게, 아이들 사진을 부모에게 찍어 주자’고 시작한 것이 일이 커졌어요.”

그가 JYP 소속일 때 소속사에서 ‘먼 데 가지 말고 우리 애들도 찍어라’는 ‘타박’에 사진가로서 연연인 사진도 찍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최근에는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인 쯔위의 화보까지 내기도 했다.

이정진은 사진작가이자 후배 배우로서 선배 배우들의 사진을 촬영해 방송국에 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국이 지금과 같이 탄탄해진 데에는 선배님들이 30~40년 연기한 모든 것이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후배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그 작업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도 올해로 데뷔 18년차가 됐다.

그는 “대면을 받을 때면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든다”며 관객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계속 대중의 부름을 받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센 언니들이 모였어요



김숙·박소현·박나래·차오루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여성 MC들은 작은 부분까지 건드리는 섬세함이 있죠. ‘라디오스타’가 ‘젊은 그룹’이라면 ‘비디오스타’는 ‘충충한 그룹’입니다.” 네 명의 남자 MC들이 주도하는 거친 토크로 장수하고 있는 MBC TV 예능 ‘라디오스타’의 여자 버전이 나왔다.

MBC에브리원인 12일 처음 방송한 ‘비디오스타’가 그것.

조곤조곤한 말투로 정곡을 찌르는 만인니 박소현(45), 거침없는 중간라인 김숙(41), 박나래(31), 조심스럽지만 할 말은 하는 막내 차오루(29)로 구성된 MC 구성마저 김국진-윤종신-김구라-규현으로 이어지는 ‘라디오스타’와 달랐다.

연출을 맡은 이윤정 PD는 이날 제작발표

회에서 “저희 프로그램은 ‘라디오스타’의 스피노프를 자처하기 때문에 거기(‘라디오스타’)에서 병풍 역할을 하셨던 분들, 섭외를 거절당한 분들을 따뜻하게 안아드리겠다”는 재치있는 말로 포부를 전했다.

KBS 2TV ‘언니들의 슬램덩크’로 여성 예능의 부활을 알린 김숙은 “멤버들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데, 이 팀도 첫날부터 거리가 하나도 없었다”며 “유재석·강호동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박나래·안영미의 시대가 올 것”이라며 여성 예능 시대를 향한 열망을 드러냈다.

특히 박나래는 “출연진은 열심히 임을 달고, 제작진은 출연진을 탈탈 탄다”며 특한 토크쇼를 예고했다.

젝스키스 9월 단독 콘서트

1세대 아이돌 그룹젝스키스가 해체 16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11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젝스키스는 9월 10~11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000년 해체 이후 처음으로 자신들의 이

름을 내건 단독 공연을 펼친다.젝스키스는 지난 4월 방송된 MBC TV ‘무한도전-토토가 2’를 통해 재결성했다. 고지용을 뺀 다섯 멤버는 이후 YG와 계약하고 6월 공연을 계획했으나 완성도 높은 무대를 보여주겠다며 연기했다.



TV 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육성PD의 자연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재)	00 수상한 휴가(재)	00 창사 55주년 특별기획 (옥중화)(재)	00 닥터 365 05 위대한 유산 3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12	00 KBS 뉴스 12	00 KBS 특별기획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재)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운빨 로맨스)(재)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 55 테마스페셜 55 TV 블로그 폼지락
1	00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감성애니 하루			
2	00 한국인의 밤상 50 특집다큐 (그술에 행복이 산다)(재)	00 KBS 뉴스타임 10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다시보는 대한민국 올림픽 명승부	20 텔레노스터리(재) 25 드림지니어 스페셜 55 텔레노스터리(재)	00 열린 TV 시청자세상
3	45 세계는 지금 스페셜 55 토티생방송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험대 55 모두모두 쇼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베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고졸라즈 30 SBS 뉴스파라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현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필통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폼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가족)	30 글로벌 24 55 동시대사 전국방송내보내기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광주 특별생방송 윤정현 시장에게 묻는다	00 KBS 특별기획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00 수목미니시리즈 (운빨 로맨스)	00 드라마 스페셜 (원티드)
11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뱅 디 콘서트 (재)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보컬 전쟁 신의 목소리
12	50 동행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10:30 한국기행	15:20 꼬마철학자 휴고
05:30 건강한 아침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35 호기심나라 오키도
05:4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신삼국지 - 지혜의 화신 제갈량)	(통삼국지 감지에게 고구마채볶음)	15:50 바오발성의 파오파오
06:10 세계의 눈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00 출동! 슈퍼왕스(재)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07:30 주사위 오정 큐비슈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45 덩동영 유치원 1~3(재)
07:45 뽕뽕뽕 뽕뽕로	12:45 EBS 초대석	17:30 꼬마버스 타요(재)
08:00 덩동영 유치원 1~3	13:40 사이인3 왔다 사춘기	17:45 뽕뽕뽕 뽕뽕로(재)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3:50 이암 스페이스 정글	18:00 생방송 특집! 보니하니1~4
09:00 출동! 슈퍼왕스	14:00 책과 팜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30 미앤마이로봇	19:30 EBS 뉴스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15:00 모피와 친구들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학원비 환불, 제대로 알기)	15:10 세계사 시간여행	20:40 다크 오울
		(자비 - 판정의 답새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3일(음 6월 10일 丙申)	
子	48년생 상당히 높은 계도로 오르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꾀하게 된다. 60년생 강한 처지에 있던 이가 특효가 있는 약을 얻는 이치이다. 72년생 살과 불일이다. 84년생 비밀리에 조용히 실행해야 할 일이 있다. 행운의 숫자 : 33, 05	午	42년생 강력한 역학 관계 하에 놓이는 판세이리라. 54년생 문서에 이로움이 있으니 잘 활용에 보자. 66년생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 78년생 기쁜 충실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1, 42
丑	49년생 승산의 여지는 충분하니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지는 말라. 61년생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격이로다. 73년생 시시각각 변하는 위상이나 진중판 판안이 요구된다. 85년생 김사의 움이 싹트기 시작하는 성국이다. 행운의 숫자 : 62, 01	未	43년생 진중하게 견지한다면 마침내 성취하리라. 55년생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가 있을 것이다. 67년생 김은이 순조롭게 부러니 저절로 흥겨운 쿠키노가 나올 것이다. 79년생 열매가 사름 잡는 법이니 조심하자. 행운의 숫자 : 87, 94
寅	50년생 작은 것을 소중히 다루어 큰 것을 얻는다. 62년생 소금 팔러 나가려니가 비가 내리는 이치이다. 74년생 초심을 잃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성부의 관건이다. 86년생 천천히 하는 편이 완 벽함을 도모하기 쉽다. 행운의 숫자 : 28, 77	申	44년생 금전상의 행운이 따를 수도 있는 날이다. 56년생 쉽게 영 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68년생 과거에 묻어 두었던 비밀들의 실 체가 사실로 드러나는 형세를 이룰 것이다. 80년생 길게 거침 없이 펼쳐지리라. 행운의 숫자 : 57, 34
卯	51년생 눈앞에서의 현혹은 허행된 것이니 빨리 접수속 이익이다. 63년생 발걸음에 달려서 기우니 걱정부터 앞서리라. 75년생 크게 탄식할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87년생 보완만 한다면 달성 하리라. 행운의 숫자 : 88, 56	酉	45년생 의외로 결과는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57년생 상대의 깊은 마음속을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69년생 과거의 잘못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81년생 참여하면 여러 가지 부가 적 이익이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99, 69
辰	40년생 수효가 아니라 실속임을 분명히 알자. 52년생 단편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64년생 시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리라. 76년생 지속한다면 반드시 성사한다. 88년생 보류했을 때는 무리가 따른다. 행운의 숫자 : 97, 24	戌	46년생 유독 뛰어난 것이 보이니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58년생 금석지간에 취한 하루가 될 것이다. 70년생 여유로움이 완벽 함을 담보할 수 있다. 82년생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뜻한 바를 이루리라. 행운의 숫자 : 09, 02
巳	41년생 시선을 딛 데로 돌려 보아라. 53년생 근거부터 확보해두 자. 65년생 순서와 방법대로 행하라. 77년생 한 번의 실수가 공 든 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89년생 애지중지하여 왔던 바의 일 부가 사라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7, 60	亥	47년생 미리 선수를 치지 않으면 오히려 당하게 된다. 59년생 많은 재량이 임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71년생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제대로 해야 언젠가. 83년생 부실 함과 혼란이 보이는 과도기이다. 행운의 숫자 : 22, 67